

이혼위기 상황에서 성경적상담을 받은 기독교여성들의 경험의 본질

이 정 실*

국문초록

기독교여성들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이혼위기 상황에서 성경적 상담을 받았던 기독교여성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그 구체적 상황과 구조 속에 놓인 보편적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 신자들을 전인적으로 통찰하여 돕는 성경적상담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혼위기 상황에서 성경적상담을 받았던 5인의 교회 여성신자들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녹음·전사 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상황들은 313개의 의미단위로 파악되었으며,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171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공통의 의미단위로 재통합하여 총 21개의 하위 구성 요소와 12개의 구성 요소로 범주화하였고, 5개의 본질로 통합하였다. 이혼위기 상황에서 성경적상담을 경험한 기독교여성들은 '적신호에서 출발한 결혼', '결혼생활의 많은 고난들', '고난에 대처한 몸부림'의 과정을 지나 '고난 중 경험한 성경적상담', '성장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이라는 변화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위기 기독교여성들처럼 고난에 처한 신자들을 돕는 성경적상담의 의미를 조명하고 그 확산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여성, 이혼, 성경적상담, 경험의 본질, 현상학적 연구

* 정실심리상담진로설계센터 센터장

I. 여는 글

부부가 서로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각한 이혼위기 상황에 이를 때 가족은 해체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혼위기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이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곽정임, 2022: 385).

통계청의 혼인, 이혼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1000건이며, 이혼 건수는 9만3000건(통계청, 2022)으로 우리 사회는 현재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정도로 혼인 대비 이혼율이 높은 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은 부부 중 여러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 잠재적 이혼 부부이거나 서류상 법적인 절차를 밟하지 않고 별거 상태의 가정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통계청의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까지 더한다면 우리 사회의 실제 이혼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혼자 중 기독교인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아직 없지만, 우리 사회에 혼인 대비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경험하는 기독교인의 비율도 증가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혼은 사회의 주요 구성요소인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 및 부모·형제에까지 심리적,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고통이 초래된다. 이혼의 증가는 가정의 위기 속에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재희, 2003). 이혼위기에 있거나 이혼한 당사자들은 극심한 슬픔과 분노, 실패감과 자존감의 하락, 상실과 무력감, 우울증, 의욕 저하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비난과 부당한 차별,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 등으로 대인 관계 문제와 경제적 곤란을 겪기도 한다. 더불어 이혼 가정의 자녀들도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크고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박상윤, 2022; 정푸름, 2018; 정정숙, 2008; 최동인, 2008; 박성주, 박재황, 2008; 한재희, 2003; 나동광, 2003).

그러므로 이혼·이혼위기 당사자와 그 가정을 위한 심리·정서 및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상담적 개입이다. 사회 곳곳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상담센터가 있지만 이혼의 고통 속에 있는 당사자들이 상담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와 법률적 접근으로 또 지역사회관계망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혼가정에 상담이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작동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최미란, 2020; 김인복, 신애자, 2018; 박성주, 박재황, 2008).

한편 이혼을 경험한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혼의 일반적인 고통에 더불어 이혼을 금기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관습으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

리는 이중고에 놓여있다. 지역 교회들은 성경의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금하는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상담·복지 자원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이혼자나 이혼위기의 신자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혼위기 상황에서나 이혼 후에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신자가 많은 실정이다(이후주, 2023; 김규리, 2019; 정푸름, 2018; 정정숙, 2008; 최동인, 2008; 한재희, 2003).

모든 이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적 사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혼하지 못함으로써 더 불행한 삶을 영위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부부의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박미경, 2011). 즉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Adams, 2008).

기독교인 이혼자와 이혼가정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회는 성경적상담의 관점과 태도로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이혼자를 돌볼 수 있는 영혼돌봄사역이 일어나야 한다(Adams, 2008; 정정숙, 2008; 한재희, 2003). 기독교인의 경우 종교적 신념과 신앙이 삶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부부의 이혼위기 상담은 독특한 측면을 나타낸다(Yarhouse & Sells, 2010: 20).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혼위기 고통과 신앙적 혼란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영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안목과 실천을 위한 성경적상담 훈련이 성경적상담자와 교회 사역자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Adams, 2008; Kostenberger & Jones, 2016).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기독교인 이혼, 이혼위기 문제와 그들에 대한 돌봄과 상담적 접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에 이혼, 기독교인 이혼, 이혼 상담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2000년 이후에 연구된 자료를 탐색했다. 그중 기독교인 이혼자와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 및 목회적 돌봄이나 상담적 접근으로 연구한 논문은 서른여 편으로 파악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세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례보다는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돕는 성경적 신학적 고찰 연구(노재관, 2015; 이은애, 2013; 지영옥, 2013; 박미경, 2011; 이준호, 2010; 권혁승, 2001; 나동광, 2001), 이혼에 대한 목회상담적 돌봄의 중요성과 실천방안을 제안한 연구(양병모, 2021; 오대희, 2019; 정푸름, 2019; 정정숙, 2008; 김진영, 2006; 유재성, 2004; 한재희, 2003; 박노권, 2003; 권혁승, 2001; 나동광, 2003), 이혼자와 이혼가정을 돕는 상담사례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곽정임,

2022; 김영화, 2019; 김영주, 2010; 최동인, 2008; 홍영택, 2008; 박선영, 2005)이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기독교인 이혼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고찰과 목회 상담적 실천 방안들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다 보니 이혼 또는 이혼위기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생생하게 접촉되어 그들의 상담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 당사자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상담적 접근은 어떠한지 잘 듣고 탐색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여성으로서 이혼위기 상황 속에서 성경적상담을 통해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의 언어와 목소리로 들으며 생생하게 접촉하여 이해하고, 이혼위기와 성경적상담 경험이 그들 인생에 끼친 영향을 현상학적으로 통찰하여 극심한 고난에 있는 신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성경적상담의 원리와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기독교여성들의 이혼위기 상황과 성경적상담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혼위기의 기독교여성들이 경험한 성경적상담의 의미는 어떠한가?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이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는 말씀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결혼을 세우시고 사회의 근본 요소로 만드셨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드신 제도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폐지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혼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도록 명하고 있다. '이혼증서'에서 '이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내보내다(sepher)'라는

의미이며, 신약에서 '이혼(apoluo)'은 '자유롭게 되다, 벗어나다, 버리다, 보내다, 풀어 주다 내쫓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Adams, 2008: 73). 구약 신명기로부터 시작된 이혼증서의 규제는 시대적으로 약자였던, 이혼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규리, 2019; Adams, 2008; 유재성, 2004; 한재희, 2003; 권혁승, 2001).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혼에 관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는 말씀으로 이혼을 금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다. 한편 사도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는 권고와 함께 비신자와의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다(고전 7:10-15).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며 신성한 속성을 지닌다는 것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구약·신약의 공통된 이해이다.

한편 이혼의 구체적 상황에 개입할 때 이혼 사유의 해석에 차이가 존재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노권, 2005; 유재성, 2004). 이혼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현실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일은 이혼의 시대적, 사회문화적 차이들로 인하여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이혼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신자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혼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는 말씀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처와 고통과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모든 이혼을 같은 방식으로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다(Adams, 2008: 72).

비록 모든 이혼이 죄의 결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이혼이 죄는 아니라는 점이다(Adams, 2008: 57-70). 이는 「이혼도, 하나님의 뜻인가」에서 “이혼의 이유는 죄이지만 그 이유로 인한 이혼의 권리는 신성한 것이다”라는 Murray (1953)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Kostenberger와 Jones (2016)는 신자에게 있어 이혼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설사 이혼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한 죄는 신자의 삶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죄를 고백하면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

혼의 성경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2) 성경적상담의 특징

성경적상담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성경적 원리와 방법에 근거한다는 것과 성경적 인간관으로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삼중적 치료관계, 그리고 성경말씀과 기도를 치료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첫째 성경적상담의 특징은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적 세계관에 있다. 어느 상담이 성경적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상담 실천에서 사용되는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상담을 실천하는 전반에 담지하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규보, 2021: 35). 성경적상담자는 성경을 기초로 인간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진단하며 성경적 방식으로 치유와 성장을 위한 개입을 제공한다(김규보, 2024: 144). 성경적상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전달하는 상담자를 치료적 개입으로 제시한다. 성경적상담자들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공유하며 성경을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안경으로 사용하고 있다(Lambert, 2015: 217).

성경적상담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혼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상담의 원리를 종합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며, 이를 치유하는 상담의 원리와 방법은 성경에 근거한다. 그 핵심은 복음이고, 성경적상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로서 고난을 간과할 수 없으며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황규명, 2008: 47-117).

성경적상담의 목적은 고통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과 상처 너머의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구원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실천이다. 즉 죄와 상처에서 회복된 내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김규보, 2024: 153).

둘째로 성경적상담의 인간 이해는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를 두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관점처럼 인간에 대한 전인적 차원을 고려하여 접근

하는 특징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창조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존재로, 즉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만드셨다(김규보, 2021; 48). 각 사람은 다른 피조물로 대체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존재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성경적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담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내담자들은 죄와 상처, 갈등, 중독, 우울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죄는 상처나 결핍이나 불행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소름끼치는 현실이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안경승, 2004 : 511).

성경적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다양한 범주에서 고려하여 접근한다. 신경생리적 문제, 심리관계적 상태, 가족체계 특성과 사회문화적 정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우상숭배와 죄의 문제, 마음의 동기 등을 통찰하여 개입한다(김규보, 2023: 5). 무엇보다 전인적인 인간의 영성은 전인적 관계성 안에서 확립되며 전인적 관계성의 가장 본질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강연정, 2006: 9-23)이기에 성경적상담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적 인간관은 관계성 중심의 영혼관으로서 하나님, 이웃, 자신과의 관계 속에 본연의 모습을 빚어가기에 인간의 회복과 성장은 하나님, 이웃,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안경승, 2021: 188).

일반심리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위한 치료 방안에서 성경적상담이 중점을 두는 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의 삶에 중요한 측면이 간과된 채 상담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인간의 문제를 영적 영역부터 병리적 영역까지 전인적으로 통찰하여 돕는 성경적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성경적상담은 일반 심리상담의 상담자-내담자의 이중 치료적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중 치료적 동맹이라는 점이 특징이다(김규보, 2024: 159-160). 성경적상담에서 치료자는 성령하나님이시며 그 일의 주요한 통로는 성육신적 사역을 감당하는 성경적상담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적상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삼중으로 치료적 동맹을 맺

는 과정이며 상담 현장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성경적상담자와의 상담 관계가 중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경적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내담자를 초청하여 함께 걸음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내담자는 그 경험을 이웃 관계에 적용하고 확장하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김규보, 2024: 154).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적상담자의 삶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초대장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경적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방법이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성육신적 사역이다. 성경적상담자는 지금 여기 내담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김규보, 2021: 58). 성경적상담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담자를 바라보는 실천은 하나님의 마음(공휼)을 전달하는 영적 메시지이자 특별한 표현 방법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감(empathy)을 넘어 하나님(Theo)의 마음, 감정(pathy) 즉 Theo-pathy를 담지하는 실천이다(김규보, 2024: 156-157).

넷째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 성경적상담 현장에서 강력한 치료 도구가 된다. 신자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써 신자의 변화와 회복과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상담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이선영, 2015: 213-214).

오윤선(2011)은 말씀 묵상 기도가 심리적 증상 완화에 실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연구는 기독교 전통을 따른 말씀 묵상 기도가 이상심리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는데, 이는 성경 말씀과 기도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치료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와 함께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마음을 확인하며 그 관계로 초대받는다. 상담실에서 나누고 과제를 부여받아 일상에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할 때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서서히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같이 상담자는 일시적으로 내담자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성경과 신학에 훈련된 종이어야 한다(정정숙, 1992: 190).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을 활용한다고 하여 그 상담이 성경적상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상담자가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신봉하여 자칫 경직되고 지시적 상담이 될 위험도 있다. 내담자에게 맞는 성경구절이나 범위를 정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담자의 속도에 맞추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담자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시간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김필진, 2009: 227-228).

이같은 성경적상담의 특징은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과의 상담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다. 성경적상담자는 Theo-pathy를 통해 내담자의 이혼위기의 고통을 공감하고 어루만지면서 동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루어줌으로써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정체성을 세우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소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의 이론적 근거

본 연구는 교회여성신자로서 이혼의 위기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성경적 상담을 경험한 이들의 고난과 치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접촉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Husserl(1948)의 현상학에 근거하는데, Husserl(1948)은 현상학의 창시자이다. 현상학은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이자 질적 연구 방법이다. 후설은 경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탐구하는 것이 사람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현상학적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Creswell, 2013).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은 상황적 구조의 진술에서 연구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 진술로 통합해 내는 특성이 있다(김분한 외, 199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이혼위기와 성경적상담 경험의 공통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2)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적절성'에 부합하기 위하여(Morse & Field, 1994) 현재의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결혼 이전부터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부서 직분에 봉사하는 등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 온 여성, 둘째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이혼위기 상황을 1년 이상 경험한 여성, 셋째 이혼위기 상황에서 성경적상담을 포함한 상담 경험이 15회기 이상 되는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에 동의하는 참여자로서, 오랜 신앙경력과 사역활동, 결혼생활과 이혼위기 상황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성경적상담을 포함한 여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5인이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1>, 그리고 상담의 경험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연구 참여자	연령	직종	학력	신앙기간	결혼 기간	이혼유무	자녀(연령)
참여자1	55세	기독교사역	대졸	40년 이상	32년	결혼유지	2 (31,27세)
참여자2	46세	회사사무직	대졸	모태신앙	10년	이혼	2 (12,8세)
참여자3	45세	교육직	대졸	30년 이상	16년	이혼	2 (16,12세)
참여자4	45세	보건의료	대졸	25년 이상	22년	결혼유지	3 (21,18,13세)
참여자5	43세	디자인직	대학원졸	모태신앙	11년	결혼유지	0

<표 2> 연구참여자의 상담 경험에 따른 분류

연구참여자	일반심리상담 또는 목회상담 경험	성경적상담 경험
참여자1	목회상담 3차례	성경적상담 12회기
참여자2	일반심리상담 20회기	성경적상담 25회기

참여자3	목회상담 2차례, 정신과상담 2차례	성경적상담 12회기
참여자4	기독교상담 10회기, 일반심리상담 10회기	성경적상담 20회기
참여자5	기독교상담 3회기, 일반심리상담 35회기	성경적상담 25회기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연구참여자들과 3회 이상 만났으며, 총 180분~280분의 개별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주제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Morse & Field, 1994)에 따라 참여자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 형태로 진행되었고 질문은 결혼과 이혼위기 상황, 그리고 일반상담과 성경적상담 경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다음의 질문을 포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풀어내는 대화로 진행되었다. “결혼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이혼위기는 언제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이혼위기 상황에서 주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집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느껴졌나요?”, “신자로서 이혼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혼위기에서 어떤 종류의 상담을 몇 번 받았나요?”, “이혼위기 상황을 교회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었나요? 공유할 수 있었다면 어떤 도움 또는 어려움을 겪었나요?”, “성경적상담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성경적상담 경험이 준 의미는 어떠한가요?” 이 외에도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좀 더 탐색하거나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질문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들로 개별 심층 면담한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개별 심층 면담을 녹취한 면담자료를 전사하여 Giorgi(199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4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1단계,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는 단계로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 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녹취 전사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다. 이 작업으로 기독교여성으로서 이혼위기 상황에서 겪은 고통과 성경적상담을 받은 경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인식과 느낌을 얻었다. 2단계, 연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단위’를 구분해 내는 과정으로 313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그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여 171개를 분석하였다. 3단계,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의미단위를 기술하면서 그 체험

의 본질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연구참여자 공통의 의미단위를 재통합하여 21개의 의미단위로 요약하였다. 4단계, 재통합 된 의미단위를 근거하여 경험의 구조로 통합시켰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들을 경험의 본질을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하여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공통적 속성들을 재배치하고 묶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12개의 구성요소와 21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조를 도출할 수 있었고, 5개의 본질로 통합하여 기독교여성의 이혼위기 경험과 성경적상담의 경험의 본질을 분석할 수 있었다.

4) 윤리적 고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위한 신경림(2004)의 윤리적 원칙과 질적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Guba & Lincoln(1985)의 '감사자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알린 뒤에 연구 수행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면담내용과 연구참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였다. 면담 진행 시 소요될 시간과 면담 장소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비밀 보장과 익명성의 약속,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및 연구 참여 철회의 자유, 면담 내용 녹취 동의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둘째, 전사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 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 자료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분석한 내용과 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의하는 절차를 거쳐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연구 결과

1) 기독교여성의 이혼위기 상황 속 성경적상담 경험의 본질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분석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313개의 의미단위를 파악하고, 그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여 171개를 도출하였다. 이를 공통의 의미단위로 재통합하여 21개의 의미단위로 요약하고 12개의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다. 이혼위기 기독교여성의 성경적상담 경험의 구조는 크게 12개의 구성요소와 21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이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기독교여성의 이혼위기와 성경적상담의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총 5개로서 ‘적신호에서 출발한 결혼생활’, ‘결혼생활의 많은 고난들’, ‘고난에 대처한 몸부림’, ‘고난 중 경험한 성경적상담’, ‘성장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독교 여성의 이혼위기 상황 속 성경적상담 경험의 본질과 구성요소

본질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적신호에서 출발한 결혼	상황에 떠밀려 결혼함	· 상황에 몰려 급하게 하게 된 결혼 · 동기와 안목이 부족했던 선택
	신혼부터 고난이 시작됨	· 파국의 전조 같았던 신혼
결혼생활의 많은 고난들	폭력으로 얼룩진 결혼생활	· 배우자의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 성적 폭력 · 중독, 폭력, 외도 등으로 이혼위기가 닥침 · 긴장하게 되는 편치 않은 공간, 집
	신념으로 변질된 신앙	· ‘불행한 결혼으로 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오해로 내적 고통이 더해짐
고난에 대처한 몸부림	부부갈등으로 상담을 받음	· 부부갈등을 이기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함 · 일반심리상담, 교회목회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기도 하고 혼란이 가중되기도 함
	교회 지체들과 공유하는 문제	· 교회지체와 문제를 공유했으나 오히려 오해받고 어려움을 겪음 · 교회에서 나의 고통을 오픈하지 못함- 남편이 같은 공동체에 있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자녀 보호를 위한 몸부림	· 자녀를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버팀 · 자녀를 보호하고자 이혼을 선택함
고난 중 경험한 성경적상담	성경적상담에 대한 오해	· 성경적상담에 대한 오해로 상담받기를 망설임
	신자의 정체성을 정립함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준 성경적상담 ·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준 성경적상담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은혜	·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인 성경적상담
성장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	고난으로 성장하게 하신 은혜	· 결혼생활의 고난이 준 통찰들 · 현재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
	앞날을 기대하며 섬김의 자리로	·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미래를 기대함 ·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

이하에서는 구성요소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적 구조를 기술하고 기독교 여성의 이혼위기 상황 속 성경적상담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상황적 구조 기술

이혼위기 기독교 여성의 성경적상담 경험 구조는 ‘적신호에서 출발한 결혼생활’, ‘결혼 생활의 많은 고난들’, ‘고난에 대처한 몸부림’, ‘고난 중 경험한 돌봄과 성경적상담’, ‘성장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1) 적신호에서 출발한 결혼생활

① 상황에 떠밀려 결혼함

5인의 연구참여자들은 청년 시절 교회를 좋아하고 신앙생활이 삶의 중심에 있던 이들로 진술했다. 그런데 결혼의 계기는 불행한 사고로 한 경우(참여자1) 외에 대부분 결혼할 나이가 되어 조급해진 마음과 상대방이나 가족이 밀어붙여 급하게 결혼이 진행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한편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격과 신앙을 객관적으로 볼 여지를 갖지 못하고 신앙으로 품고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연애 대상이 불신자인 경우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는 등 배우자 선택의 동기와 안목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보다 그해 초에 내가 올해 결혼을 하겠다는 게 더 강한 계기여서 나만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나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압박도 사실 있었고... (중략) 내가 올해 꼭 결혼을 하리라, 그래서 친해진 남자가 있기에 그냥 약간은 쉽게 결정했죠.”
(참여자2)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마 그를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찌면 또 더 나아가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요.” (참여자3)

② 신혼부터 고난이 시작됨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결혼생활이 신혼부터 시작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시집살이로

인해 남편과 의견을 조율 할 여건을 갖지 못한 경우(참여자4)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성격 유형을 남편으로 만나고 그 사람을 견뎌내야 하는 충격, 즉 배우자의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고와 태도로 결혼생활이 당황스러움에서 혼란과 좌절로 이행되는 마음을 진술하였다.

“결혼 후 딱 8개월이 되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니 출발부터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나는 사람이... 내가 경험한 사람이 거의 교회 사람들이라, 상식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중략) 그 사람은 일단 경제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면 정말 안 굶어 죽을 만큼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결혼을 해보니까 카드빚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참여자1)

“신뢰를 깨는 데는 한몫했던 게 (중략) 신혼여행에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겼다가 바로 유산이 됐는데 (중략)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00씨가 처음에는 약간 걱정하고 뭐 이렇게 잘해주다가 한 일주일 보름쯤 지났나 갑자기 근데 너 일 구해야 되지않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그게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아파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00씨도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참여자2)

(2) 결혼생활의 많은 고난들

① 폭력으로 얼룩진 결혼생활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생활은 10년~30년 이상이었다. 그 속에서 경험한 남편의 폭력은 심각한 수위였다. 배우자의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물리적), 성적 폭력들로 얼룩진 결혼생활에서 오는 불행감으로 이들은 “넌 쓸모없어”라는 존재 가치의 하락과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라는 죄책감과 실패감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와 중독 문제는 결혼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어느 순간부터 술을 먹으면 발기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발기가 안 되는 그 상태로 사람을 두 시간 세 시간 괴롭혀요. (중략) 당연히 네 탓이야라고 하지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섹

스를 안 해줘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중략)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다야,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참여자1)

“내가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게 술이랑 게임문제였거든요. (중략) 집에 오면은 게임하고 술 마시는 거예요, 계속. (중략)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게임을 해요. (중략) 컴퓨터를 켜더니 화를 내면서 내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거실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다가 내 머리를 찍고 그 상다리가 부러지고 발로 내 배를 짓밟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응급실 갔다 오고, (중략) 나를 괴롭히긴 많이 괴롭혔지요. 술해 괴롭혔지요.” (참여자3)

“술을 당연하게 그냥 일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나한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절제하려는 노력도 없고 (중략) 그러다 여자 문제도 생겨서 (중략) 그러고서는 다시 없을 줄 알았지요. 그런 일이,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왔을 때 충격이 더 컸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 남편이 첫 사건 때 반응과 전혀 상반된 반응을 했던 게, 오히려 자기가 더 나한테 끝내자고 하고 그런게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4)

“이 사람은 약점을 안아주기보다는 그거를 갖고 자기가 위급하다 느낄 때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대 인간으로 이정도 선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여지없이 계속 무너지고 (중략) 위협적인 어떤 난폭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화에 못이겨서 난폭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들 (중략) 그 당시에, 지금도 너무 심할 때는 그러지만, 그냥 죽는 것밖에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여자5)

이러한 고난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공포와 긴장의 연속으로 편히 쉴 수 없는,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 그리고 감옥 같은 곳이 되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감옥이지 감옥. 창살 없는 감옥 같고... 결혼하고

처음에 내가 느낀 감정은 집에 내가 잘못 놓인 가구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참여자1)

“집은 항상 너무 긴장이 있어서, 저에게 집은 항상 제일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긴장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긴장을 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상처가 커서, 집에서 긴장 풀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들으면 제가 놀라니까, 그래 이 집은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야 하고 약간 그렇게 해냈어요.” (참여자2)

“신혼 때는 그냥 남의 집 같았지요, 들어간다고 더 편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나는 일을 하고 와서도 또 가서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또 집안일을 해야되고... 집 들어가는 게 그때가 제일 싫었던 거 같아요. (중략) 남편이 있으면 또 그냥 술 잔뜩 먹고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기 때문에 불안감이 점점 올라 오고...” (참여자4)

② 신념으로 변질 된 신앙

배우자의 갖은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연구참여자들은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별을 받고 있다는 오해, 그리고 신자로서 죽더라도 믿음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승리해야 한다(=이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이었다. 고통 속에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었고, 교회공동체에서 이해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며 떠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와 신념들은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었다.

결혼 전 교회생활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결혼관과 이혼관, 신자로서 마땅한 명예로운 삶의 모습,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모범 등에 대한 관습적인 개념은 이들 결혼생활의 고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을 방해하고 영적 묶임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울무가 되었다. 한편 좋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신념은 협조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정죄하는 틀로 작용하기도 했다(참여자4).

“불행한 결혼생활 시작되고 첫 번째 딱 든 느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였어요. (중략) 하나님이 그럼 결국은 나를 여기로 밀어넣으신 거지 나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불행이... 우리 왜 보통 그러잖아요. 형통한 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는 인생의 결말이 행복이야, 해피엔딩이야. 근데 버리신 거에 대한 것이 세드엔딩이란 말이야. 우리는 딱 그렇게 고정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결국은 내가 버려진 자라는 거죠, 이 불행한 결혼생활은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들어왔던 그때 설교 자체가 맨날 그런 설교만 들었으니까.” (참여자1)

“00씨랑 결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중략) 그냥 제가 결혼한 거니까 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꺼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중략) 하나님이 이거를 잘못된 거에 대해서 또 청년 때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나를 벌을 주시는 게 아닐 건데도 벌을 받는 느낌이라서... 그러다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게 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이 벌이 끝나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참여자2)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혼위기를 겪고 하니까 교회 봉사하던 직분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실패했다는 생각, 자격을 상실했다고 느꼈어요. (중략) 연약한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나는 이거에 진짜 오래 묶여 있던 거 같아요. 내 주변에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천지삐까리이고 친정시댁 할 거 없이 다 그런 사람들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모르게 내가 등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내가 잘해야 된다, 죽더라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숨기고 말 안 하게되고...” (참여자3)

(3) 고난에 대처한 몸부림

① 교회 목회상담 또는 일반 심리상담의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관계 문제를 타개하고자 또는 결혼생활의 불행감을 이겨내고자 교회 중직들을 만나 상담하거나 일반 심리상담을 받으며 결혼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도움을 시도하고, 방법을 적용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속에 도움을 얻기도 하고 도리어 혼란과 죄책감, 수치감이 더해지기도 했다.

“상담해 준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틀에 박힌 그런 얘기들 했어요. (중략) 그 사람들이랑 말하고 나면, 그러니까 딱 자세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정답을 줄 거야 내가 널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정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테.” (참여자1)

“의사들이랑 상담했을 때는, 나는 그때 아직 이혼하려는 생각을 안하고 남편 치료하려고 갔었는데, 의사들이 다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은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중략)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중략) 교구목사님은 답을 얘기하셨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뭐 그런... 이미 내가 다 했으나 실패한 것들 내가 해봤던 것들 그런 거를 얘기하셨고...” (참여자3)

“처음 상담은 기독교 상담이라고 들었는데 (중략) 그때 남편 외도 문제 때문에 받았는데 결국은 엄마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원가족하고 먼저 해소가 돼야한다고. (중략) 지금 나는 남편하고의 문제를 갖고 온 건데 이진 남편하고의 문제만은 아니고 엄마와의 문제까지도 같이 접근해야된다는 거 들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남편하고만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적돼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걸 다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막막함으로 그렇게 상담이 끝났어요.” (참여자4)

“상담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초반에 이제 성관계 갈등으로 남편이 지인한테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중략) 기독교 베이스라고 들었는데, 다짜고짜 되게 제가 혼나는 듯한 느낌을 엄청 받았거든요. (중략) 그

러니까 의무를, 그치 내가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셨죠. (중략) 그 이상한 상담을 처음 겪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두 번째는 일반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중략) 그 당시에 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중략)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확인받는 그 순간이 너무 중요했어요.” (참여자5)

② 교회지체들과 공유하는 문제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에서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갈등과 이혼위기의 고난은 자연스레 교회생활 속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때로는 교회직분이나 역할 때문에 드러낼 수 없어서 속앓이를 하는 어려움의 처하기도 했다. 교회 지체들에게 오픈했을 때 예기치 못한 도덕적 판단과 조언으로 상처받는 일도 겪고, 기도해서 이겨내야 한다고, 기도하자고 하여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면 실패하는 거라는 신념이 더 강화되기도 했다.

“이 불행한 결혼생활이 여자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불행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하락이에요. 넌 쓸모 없어, 너는 쓸모 없어 내지는 이거는 네가 뭔가 잘못된 결과야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을 못 이룬 결과야 그러니까 원인은 너에게 있어. 자꾸 그러니까 뭔가 회개할 걸 찾아보라고...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 회개할 걸 찾으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중략)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줄 것처럼 물어보는데 얘기하다보면 꼭 이런 결론이 나와요.” (참여자1)

“교회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는 일반적인 부부들은 예를 들면은 큰 도박 이런 거 말고는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든가 이런 갈등인 거고 남편이 양육을 좀 덜 도와준다 이런 갈등이 있는데 차마 거기다가 저는 진짜 심각한 폭력성을, 부부 사이에 이런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고민이 약하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다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참여자2)

“교구 목사님은 자매가 형제를 참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같이 기도해 보자 형제가 술을 끊기를,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다른 한 목사님은 대놓고 내 편을 드셨고요. 알코올 중독 못 고친다고 하면서 이혼하라고 하시고 (중략) 사실 사랑방 자매 한 사람이 내가 이혼 안 하고 버티는 것을 응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중략) 그런 것도 좀 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1 대 1이 아닌 것, 나를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내야 할 거 같았고...” (참여자3)

“힘들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혼위기의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 않은 거지요.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 건 말할 수 있지만 왜, 남편이 여자 문제가 이랬어요, 이런 걸 노출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지요. 남편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때문에 그 부분까지 할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도움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참여자4)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내지는 뭔가 여기서 내가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데서 얘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일단은 필요한 만큼만 교회나 주변에 이렇게 조심해서 말하고 저는 주로 전문가들을 찾아갔죠. 상담을 받았죠.” (참여자5)

③ 자녀를 위한 몸부림

참여자5를 제외하고 네 명의 참여자들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의 위기 상황들을 지나왔다. 배우자의 갖은 폭력과 중독이나 외도 등의 문제 속에서도 자녀의 안전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거나 또는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내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온 사방에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애를 놔두고는 못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내 한 인생 때문에 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렇게 가출을 포기를 했어요.” (참여자1)

“아이들 문제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간 거였죠. (중략) 죽고 싶다고, 아빠랑 놀고 나면 애가 막 그럴 정도로 애가 과하게 반응하니까, 애들 아빠는 애를 너무 잡았어요.” (참여자2)

“아이를 두 명 키우고 있다 보니 결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략) 엄마 아빠 이혼하면 사춘기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요. 저는 애들 때문에 시작한 이혼입니다라고 했지요.” (참여자3)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요,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참여자4)

(4) 고난 중 경험한 성경적상담

① 성경적상담에 대한 오해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고통을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때마다 경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영적 묵임과 손상된 정서로 어려움에 있었다. 그때 성경적상담자를 만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었다고 한다. 성경적상담자를 소개받던 처음에는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이전 기독교 상담의 경험이 좋지 않았던 결과로, 자신의 영적 상황과 이혼 갈등에 대해 정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기독교인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안에 그때 아마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마음이 좀 기저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분명히 나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할 텐데 내가 그걸 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반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여자2)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일단은 성경적상담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래야 하는 거를 강요하고 그럴 거 같았어요.” (참여자5)

② 신자의 정체성을 정립함

그들은 이혼위기 또는 이혼으로 마음에 깊은 고통과 죄책감, 실패감을 안고 있었다. 신체 질병이나 우울 등의 신경증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그 속에서 성경적상담자를 만나 성경적상담을 받으면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성경적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죄책과 놀림을 벗어나는 영적 돌파를 경험한 후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인생을 조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경적상담은 다른 일반심리상담과 달리 성경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도와주었고, 갈등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관계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교회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진술하였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가지로서의 나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중략) 지나온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다 그냥 견디는 걸로 다 보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성경적상담의 가장 큰 결실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이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배롭게 보시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관점을 알게 해주는 게 그게 다른 상담이랑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획득한 순간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지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참여자1)

“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그냥 살아온 얘기를 했었을 뿐인데, 선생님이 그때 막 저를 안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중략)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라고 무섭게 쳐다보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너무 아파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그 모습에 되게 오해였구나 (중략) 그 근본과 기초 자체를 확 건드려 주시니까. 이혼이 됐든 결혼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본 자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오해가 조금 풀리니까 당장의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조금 객관적으로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성경적상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재정립하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됐죠.” (참여자2)

“제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 힘들었는데 (중략) 그러니까 통념상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이거를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해야되는데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타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중략)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중략) 성경적상담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혼은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실제 생생하게 이제 함께 하시는, 나의 상황과 나의 고난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중략)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를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뭘 어떻게 내가 더 어떻게 노력해야만 이게 극복될 것 같은 그런 것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요. (중략) 성경적상담은 나한테 의무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참여자3)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담이. 이 성경적상담이라는 게 지금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요. (중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도 했고 (중략) 나의 지난 과거를 조명하면서 (중략) 성경적상담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많이 달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중략)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이걸 조명할 수 있는 그걸 좀 얻었지요. 그런 힘을 얻었던 거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흘러보냈던 그런 상담하고 좀 다른 것은 말씀에 있는 것을 기준해서 상담이 들

어가니까요.” (참여자4)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만나는 계기가 됐던 건 정말 맞는 것 같고, 이 계기로 인해 성경적상담을 만난 것도 되게 적절했고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중략) 성경적상담 선생님은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느꼈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 (중략) 결혼생활 문제를 다룰 때 결혼만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전체 인생하고 사고방식 이게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일 텐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그 얘기가 다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얘기인데, 이혼 위기라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지요.” (참여자5)

③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은혜

결혼생활에서 겪은 고통이 아직 '감사'로 나오지는 못하고, 겪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연구참여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존재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렌즈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독대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획득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나에게 허용하신 길, 나를 다루신 방식에서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는 내 바닥을 볼 수 있는 기질의 사람이 아닌 거라고. 내 도덕적 틀이 강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그 바닥까지 밀어넣으시는 거죠, 허용해 주신 거죠. 나한테 정말 이 사람이었던 이유가,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1도 없는 이 사람이었던 것이, 만약에 그 1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그것을 붙들고 그냥 노력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 바닥에 가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이다,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중략) 나는 진짜 내가 먼지인 거 티끌인 걸 알겠거든.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선택이 감사합니

다는 나는 아직 안 나오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습니다는 이제 나오네요. 30년 만에 나옵니다. 정말 1도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요.” (참여자1)

“결혼생활 통해서 제가 주님 아니고는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고, 저는 제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를 되게 진짜 처절히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거를 정말 경험한 것 같아요.” (참여자2)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내가 얻은 답을, 답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였을까 내가 나를 정말 사랑 하는지, 어떠한 고통에도 떠나지 않는 거 그거를 보시려고 했던 걸까 (중략)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려 하는지 그런 것에 조금 시선이 트였다고 해야 될까요. (중략) 지금은 좀 시각을 달리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 많이 찾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은 좀 있지요. 그런 성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은 있지요.” (참여자4)

(5) 성장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

① 고난으로 성장하게 하신 은혜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간직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이도 있고 이혼을 선택한 이도 있으며 이혼 후 재결합을 한 이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며 그러나 바뀌지 않는 현실과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최선이예요. 지나간 시간들이...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의 나일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중략) 지금 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 자신이, 내가 성도로도 또 그냥 이 정도 나이의 어른

“으로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명확하니까요.”
(참여자1)

“갑자기 느낀 건데 제가 기도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혼이 아니라 결혼생활에 대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애도의 기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결혼생활을 견뎠던 그 시기가 내가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중략) 이혼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저의 아픈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에 지쳐서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냥 괜찮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과거에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예전에는 악몽도 많이 꿰어요. 별거할 당시였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집에 벨을 막 누른다든지 (중략)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현관문 열어보고 확인했었어요. 거기 서 있을까 봐. (중략)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이제 더 이상 그 폭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있고요. 훨씬 덜 불안하지요.” (참여자3)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 것도 분명할 거고 결혼생활이 저한테 지금 그렇습니다.” (참여자5)

② 앞날을 기대하며 섬김의 자리로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위기의 고통을 지나며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관점과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지나온 고통의 시간과 그 속에서 경험한 은혜의 의미를 간직하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더라는 게, 그게 알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지요. (중략) 기다리라고 하시

면서 지금을 살게 하시는 건 나에게 좋은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여자1)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힘들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생각했거든요. (중략)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셔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약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큰일을 겪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루하루를 해결해가는 그 시간들이 진짜 힘들겠다라는 공감의 생겼어요.” (참여자2)

“교회에서 교사를 같이하고 있는 집사님인데요, 자기가 진짜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교사를 못하겠다, 난 자격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내가 겪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 교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중략)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조금만 힘들면 이혼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게 문제였던 자매들요, 근데 주님이 제발 그거 아니야 라는 거요. 내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자매들은 그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야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이혼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폭력 가운데서도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이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자매들, 응 그래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정죄감 때문이에요. 그래 그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고요.” (참여자3)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교회 여성신자로서 경험한 이혼위기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경적상담자와 연결되어 상담받았던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 5인의 이혼위기 상황 속 성경적상담의 경험은 171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고, 12개의 구성요소와 21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범주화되었으며, 5개의 경험적 본질로 통합되었다. 이혼위기 상황 속에서 성경적상담을 받았던 기독교여성들의 경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1. 이혼위기 상황 속 성경적상담을 받았던 기독교여성들의 경험의 본질

1) 적신호에서 출발한 결혼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이끌려 결혼한 공통점이 있었다. 결혼할 나이가 차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배우자가 될 남성과 주위 가족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떠밀리듯 결혼하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예비 남편과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서로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여성들이었기에 신혼에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에 회의를 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더욱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2) 결혼생활의 많은 고난들

연구참여자 5인의 결혼생활은 그야말로 폭력으로 얼룩졌다. 냉대나 무시의 정서적 폭력을 기본으로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 또한 가해졌다. 그리고 남편의 집요한 성적 요구와 폭력에 더욱 심신이 망가지는 경험을 한다. 이들의 남편들은 원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은 공통점이 있었다. 성장기에 부모 서로 갈등이 심했거나 혹은 결혼된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 남편들은 경제적 책임을 종종 간과했으며, 알코올과 게임 중독 그리고 외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여성들은 집이 창살 없는 감옥 같다고 했다. 공포스럽고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 마음 놓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자녀들 때문에 버텼다고 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이 불행한 결혼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별이라는 오해였다.

3) 고난에 대처한 몸부림

이들은 부부 갈등을 타개하고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도 했다. 교회 목회자나 그 룹리더들에게 상담을 받고, 신뢰하는 지인들과 공유하고 기도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

교회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경우에는 일반심리상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수위가 높아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친한 지인들과 상황을 공유해도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다.

죽도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혼란이 가중되었던 점은 지지자원이라고 여겼던 교회 지체들과의 소통에서 도덕적 판단과 일방적 훈계와 조언, 냉대 등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적 관점과 기계적 대응을 만날 때였다. 또는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이혼하지 않는 것)하자라는 신념을 강요당할 때였다고 한다. 때로 교회공동체는 왜곡된 신념과 실천으로 연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양상을 띄기도 한다(김규보, 2019: 128).

한편 직분이나 역할로 교회에서 문제를 오픈하지 못하고 정신과의사나 일반심리상담사를 찾았으나 그 상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신자의 정체성을 다루지 못하기에 연구참여자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얻지 못한 채 신음하는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다. 일반심리상담을 받은 참여자 중 연구참여자4는 부부 갈등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는데 상담자는 원가족과 얽여있는 부분이니 친정엄마와 문제가 풀려야 다른 문제도 풀린다고, 친정엄마와 대화법을 코칭 해주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서 상담받으라고 권했다고 한다. 친정엄마에게 상담실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단번에 거절당하고, 남편 문제로도 힘든데 엄마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으로 그 상담이 끝났다고 한다. 연구참여자5는 부부 갈등으로 대치점에 있을 때 부부 상담을 받으러 상담실을 찾았다. 이들 갈등의 핵심에 성관계 문제가 있었다. 상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무라듯이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고 다그쳐서 상담 도중에 상담실을 뛰쳐나왔다고 참여자5는 말했다.

자녀의 존재는 이들의 결혼이, 비록 이혼으로 부부관계는 마감이 됐을지라도, 실패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의 폭력을 견뎠다. 아빠 없는 가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무감이 앞섰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이 자녀들에게 향하고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이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참여자 2,3). 이들은 자기 자신, 자기의 삶보다 자녀를 위해서 불행한 결혼을 버렸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였다.

4) 고난 중 경험한 성경적상담

성경적상담을 받으며 이들은 고백한다. 불행하기만 했던 결혼생활 같은데 뒤돌아보니 지금의 나를 빚어오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크다고 말이다. 기도로 매달릴 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격려와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주위 지인들로부터 성경적상담자를 소개받았을 때 이들은 선입견으로 망설였다고 했다. 상담자가 이혼은 죄라는 교리로 정죄할 거 같아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내적 고통이 너무 컸고 당장 믿을만한 상담사를 만나기 어려웠기에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적상담자를 만났다. 그렇게 시작된 상담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성경적상담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담자를 바라보는 실천은 하나님의 마음(공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Theo)의 마음(pathy), Theo-pathy를 담지하는 실천이다(김규보, 2024: 156-157). 연구참여자들은 그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은 물론 자신의 지나온 여정을 성령님의 눈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여전히 고통인 결혼생활을 통해 자아가 산산히 부서지고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처절한 자각과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었노라 고백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듭나고 새롭게 빛어지는 시간이었노라고 말했다.

성경적상담은 고난을 겪는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다고 연구참여자들은 강조한다. 상담을 받아보니 일반심리상담과 차별성이 확연하다는 것이 그들의 증언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서 신자의 삶이 조명될 수 없기에 다른 일반 심리상담은 인간의 전인적 이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김규보, 2024: 142). 연구참여자들은 단지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을 받은 것인데 성경적상담 과정을 통하여 어느새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되고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였다.

5) 성장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고난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에서 곳곳하게 살아내며 더불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한다. 현재 이들은 이혼을 선택한 이도 있고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이도 있다.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주어진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말하며 견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 이혼위기의 결혼생활이 수치스러웠는데 그 경험이 고난에 처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혼위기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사건들이 타인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와주며 그런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김규보, 2019: 127-129).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작동하는 성경적상담의 원리에 기인한 것이다(김규보, 2024: 153-154).

이같이 연구참여자 5인의 지난 시간들을 조명해 보며 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혼위기 상황과 성경적상담 경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5인이 이혼위기 상황에서 경험한 성경적상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기독교여성들이 이혼위기 상황에서 경험한 성경적상담의 의미

1) 성경적상담에 대한 오해

이혼위기의 기독교여성들은 성경적상담이 성경 교리를 강조하고 지시적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혼위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하여 적합한 상담자를 찾고 있었고 신뢰하는 지인으로부터 성경적상담자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당시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심한 상태였기에 성경적상담자를 통해서 더 이상 정죄 받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전에 경험했던 기독교인과의 상담은 다분히 교리적이고 지시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성경적상담자를 소개받고서도 망설이던 중 부부싸움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어떤 질책을 듣더라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성경적상담은 교리적이고 지시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망설이다가도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런 상담일지라도 받아야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다.

2)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준 성경적상담

성경적상담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여성들은 자신의 존재와 불행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성경적상담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실에서 자신들을 대하는 성경적상담자의 눈빛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냥 살아온 얘기를 했을 뿐인데 선생님이 그때 막 저를 안고 올려주시는 거예요”(참여자2), “성경적상담은 나한테 의무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참여자3),

“성경적상담 선생님은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느꼈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참여자5), “이렇게 성경적상담은 죄와 고난으로 고통하는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전달한다. 성경적상담 현장은 삼위하나님이 성경적상담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김규보, 2024: 156).

3)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죄가 많아 하나님이 벌주셔서 또는 버린 자식이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는 죄책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고 남편을 변화시켜 기독교 가정답게 잘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의무와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오랜 시간 마음이 놀리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성경적상담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왜곡했던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만나는 계기가 됐던 건 정말 맞는 것 같고”(참여자5),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라고 무섭게 쳐다보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너무 아파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그 모습이 되게 오해였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성경적상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재정립하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됐죠”(참여자2), “나의 지난 과거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이걸 조명할 수 있는 그걸 좀 얻었지요”(참여자4), “성경적상담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혼은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실제 생생하게 이제 함께 하시는, 나의 상황과 나의 고난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참여자3).

4) 신자의 정체성을 정립함

성경적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자 기독교여성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가치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전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은 이혼위기 상황에서의 상처와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철저히 무력한 죄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다. “나는 진짜 내가 먼지인 거 티끌인 걸 알겠거든.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참여자1), “저는 제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되게 진짜 처절히 깨닫고”(참여자2),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도 했고”(참여자4), 이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배롭게 보시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관점을 알게 해주는 게 그게 다른 상담이랑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획득한 순간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지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참여자1).

그리고 인생이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힘이 생겼음을 고백하였다. 신자의 정체성이 죄인이자 사랑받는 자로서 알 수 없는 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당장의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조금 객관적으로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참여자2),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를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뭘 어떻게 내가 더 어떻게 노력해야만 이게 극복될 것 같은 그런 것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요”(참여자3).

5)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이 원활해졌다고 한다.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말한다. 결혼생활 중 경험한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씨름하는 처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조성해 가시는 방식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만나는 계기가 됐던 건 정말 맞는 것 같고”(참여자5),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참여자3),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경험한 것 같아요”(참여자2), “지나온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다 그냥 견디는 걸로 다 보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성경적상담의 가장 큰 결실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1),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 많이 찾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은 좀 있지요. 그런 성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은 있지요”(참여자4).

이러한 은혜를 머금은 신자가 되자 이들은 자신들처럼 고난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돕기를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마음이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티는 것이 어려운 이들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고 공감이 되기에 자연스럽게 손 내밀게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참여자 1),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하셔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약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큰일을 겪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루하루를 해결해 가는 그 시간들이 진짜 힘들겠다라는 공감이 생겼어요”(참여자2), “교회에서 교사를 같이하고 있는 집사님인데요, 자기가 진짜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교사를 못하겠다, 난 자격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내가 겪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 교사를 계속하고 계세요”(참여자3). 이들은 이혼 또는 이혼위기의 큰 고난을 지나면서 성경적상담의 계기를 통해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지금은 자신들의 삶을 꾸리며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교회 여성신자들을 대상으로 이혼 또는 이혼위기 경험을 질적 연구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이후주, 2023; 금일희, 2018)과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그 경험에서 고통의 큰 축으로서 작용한 ‘신념으로 변질된 신앙’의 부분, 신자의 인생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교회공동체와 공유하는 문제’의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 일반심리상담의 경험과 성경적상담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포착함으로써 교회의 실천신학적 돌봄사역과 성경적상담의 개입에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할 바들을 조명한 부분에 차별성과 시사점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 이혼 · 이혼위기 당사자와 그 가정을 돌보고 상담하는 교회돌봄사역자들과 성경적상담자들이 상담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난에 처한 기독교인에 대한 전인적인 탐색과 개입으로 정서 치유를 넘어 영적 돌파와 자유를 누리고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성경적상담의 의미를 확인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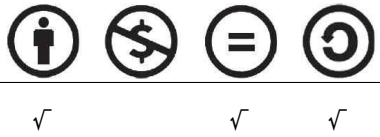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독교인 여성 5인의 경험에 국한되어 도출된 결론으로, 부부를 구성하는 그들 배우자의 경험이 결여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혼위기 상황에 놓인 남성 배우자의 인식과 상담 경험을 살펴본다면 성경적 부부상담의 개입방안을 모색하고 바른 부부 체계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불어 이

혼위기 부부들의 상황과 상담 경험에 대한 양적 연구, 성경적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비교실험연구 등을 실시하여 통합한다면 교회 위기가정 돌봄프로그램과 성경적 부부상담과 부부집단상담 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24년 09월 19일

•논문 수정일: 2024년 11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1일



【참고문헌】

- 강연정 (2006). 전인건강과 영성상담. **기독교상담학회지**, 11, 9-23
- 곽정임 (2022). 찰스 거킨의 이야기치료에 근거한 이혼위기 부부상담의 치료적 적용: 기독교인부부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78, 383-412. <http://dx.doi.org/10.14387/jkspth.2022.78.383>
- 권혁승 (2001). 이혼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과 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학천**, 576, 12-18
- 금일희 (2018). 크리스천 중년 이혼여성의 적응과정에 관한 목회상담학 연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리 (2019). 종교적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기독교인 이혼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 연구: Don Browning의 다섯 가지 실천적 도덕적 차원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5, 7-34. <http://dx.doi.org/10.17301/tf.2019.95..001>
- 김규보 (2024). 구원드라마의 인간 이해와 성경적 상담을 위한 함의: 창조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7, 137-177 <http://doi.org/10.57228/KRJ.67.5>
- 김규보 (2023). 중독에 대한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 죄의 범주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31(1), 5-35. <http://dx.doi.org/10.17841/jocag.2023.31.1.5>
- 김규보 (2021). 기독교 상담의 텔로스: 기독교 아비투스로서의 상담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과 신학**, 98, 33-70. <http://doi.org/10.17156/BT.98.02>
- 김규보 (2019).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그리스도 닮음의 실천적 함의. **성경과 신학**, 90, 99-139. <http://dx.doi.org/10.17156/BT.90.04>
- 김규보 (2019).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 **복음과 상담**, 27(2), 35-75. <http://dx.doi.org/10.17841/jocag.2019.27.2.35>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인복, 신애자 (2018). 독서치료에 기반한 집단상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독서치료연구**, 10(1), 1-23
- 김영화 (2019). 이혼위기 가정을 위한 기독교 가정회복 프로그램 유형분석을 통한 한국교회 실천방안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8). 기독교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

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필진 (2009). 기독교 상담 및 인지행동치료에서 성경과 기도의 활용. **신학과 문화**, 18, 221-244
- 나동광 (2003). 이혼과 목회상담의 실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5.
- 박노권 (2005). 이혼과 기독교상담. **연세목회전문화세미나**, 8, 161-167.
- 박미경 (2011). 이혼에 관한 예수 말씀의 역사비평적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희 (2016). 여성 기독교상담 전문가의 부부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윤 (2022). 이혼 위기 부부 대상 연구 동향(2006~2021). **인문사회**21, 13(2), 1621-1634. <http://dx.doi.org/10.22143/HSS21.13.2.114>
- 박선영 (2005). 이혼 여성들을 위한 교회 내 프로그램 연구. **성경과 상담**, 5, 52-72
- 박성주, 박재황 (2008).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이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능력, 결혼불만족도 및 실제 이혼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4), 1819-1834. <http://dx.doi.org/10.15703/kjc.9.4.200812.1819>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경승 (2021). 자기중심의 인간이해에서 영혼을 복원하기. **복음과 상담**, 29(2), 163-195, <http://dx.doi.org/10.17841/jocag.2021.29.2.163>
- 안경승 (2004). 성격의 변화와 죄에 대한 이해. **ACTS신학과선교**, 8, 494-516.
- 오윤선 (2011). 청소년의 불안 조절을 위한 말씀묵상기도 효과연구. **복음과 상담**, 17, 130-152, <http://dx.doi.org/10.17841/jocag.2011.17..130>
- 유재성 (2004). 이혼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과 그 대안: 언약적 접근. **복음과 실천**, 33(1), 277-309
- 이선영 (2016). 상담자 성경교육의 중요성 및 그 방향. **성경과 상담**, 15, 203-244
- 이후주 (2023). 기독교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기독교 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31(1), 113-148. <http://dx.doi.org/10.17841/jocag.2023.31.1.113>
- 정정숙 (2008). 가정체제의 요인으로서의 이혼에 대한 상담학적 접근. **성경과 상담**, 8, 115-141
- 정푸름 (2019). 이혼결정 전 상담에서의 분별의 영성: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여정. **신학과 실천**, 63, 213-237. <http://dx.doi.org/10.14387/jkspth.2019.63.213>

- 최동인 (2008). 크리스천 중년 여성의 이혼 후 적응형태. **신학논단**, 54, 363-399
- 최미란 (2020). 중년기 여성의 이혼위기감 형성 및 해소 경험 연구: 부부 집단상담 참여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2(2), 209-258. <http://dx.doi.org/10.21478/family.32.2.202006.007>
- 통계청 (2022). **혼인 이혼 통계 자료**. 대전: 통계청
- 한재희 (2003). 이혼문제와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5, 1-18.
- 홍영택 (2008). 이혼 및 재혼 위기 가족을 돌보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5, 229-269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Adams, J. E. (2008).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송용자 역,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서울: 부흥과개혁사. (원전 1980 출판).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서울: 학지사. (원전 1998 출판).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서울: 현문사 (원전 1985 출판).
- Guba, E. G., & Lincoln, Y. S.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Kostenberger, A. J., & Jones, D. W. (2016).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윤종석 역, *God, marriage, and family: Rebuilding the biblical foundation*). 서울: 아바서원. (원전 2004 출판).
- Lambert, H.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 (김준 역,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12 출판).
- Morse, J. M., & Field, P. A. (1994). *Aggregating qualitative findings: An approach to theory development*. Edmonton: University of Alberta.
- Murray, J. (2008). **이혼도 하나님의 뜻인가?** (김종철 역, *Divorce*). 서울: 바라미디어. (원전 1953 출판).
- Yarhouse, M. A., & Sells, J. N. (2010). **기독교가족치료** (전요섭, 한숙자, 변영인, 김영희 공역, *Family therapie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2008 출판).

[Abstract]**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Christian Women
Who Received Biblical Counseling in a Divorce Crisis****Lee, Jeong Sil***

In light of the increasing rate of divorce among Christian wome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hristian women who received Biblical Counseling during a divorce crisis, with the goal of uncovering the essence of their universal experiences within specific situations and structures. The study also seeks to discuss the meaning of Biblical Counseling in offering holistic insights to believers. To achieve this, five female church members who had experienced Biblical Counseling during a divorce crisis were recrui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identified 313 meaning units from individual situations, with 171 unique meaning units after excluding overlapping content. These units were re-integrated into common meaning units, categorized into 21 subcomponents and 12 components, and finally consolidated into five essences. Christian women who experienced Biblical Counseling during a divorce crisis went through the processes of 'marriages that began with red flags,' 'many hardships in married life,' and 'struggling to cope with hardships.' They also experienced transformative processes of 'Biblical Counseling during hardship' and 'moving towards growth and serv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Biblical Counseling in supporting believers in crisi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ts wider dissemination.

Key words: Christian women, divorce, biblical counseling, essence of the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

* JEONGSIL Center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Career Planning
/ Director